

2026. 5. 18 (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대만이 관건

-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은 300억 달러의 스몰딜 추진기로 합의
- 다만 경제 협력의 전제는 대만, 미국의 대만 문제 처리 양상에 따라 경제 협력의 시행 여부와 범위 확대 등이 결정될 전망
- 중국증시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 본토 기술주의 중장기 상승세 전망 유지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xuehua.cui@meritz.co.kr

9년 만의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핵심은 대만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중 관계가 과거의 소모적인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양국이 300억 달러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이 리쇼어링을 강제하지 않는 비민감 품목 위주로 관세 인하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압력 완화, 중국은 대미 수출 회복이라는 상호 호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300억 달러는 2025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 기준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이는 2017년 회담 당시의 합의액(2,535억 달러)와 비교해 대폭 축소된 형태여서 양국 간 깊은 전략적 불신이 여전한함을 시사한다(표 1). 또한 관세 인하가 비민감 품목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은 지속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이번 회담의 실질적 핵심은 대만 문제였다. 중국은 2시간 30분에 걸친 회담이 종료되기도 전에 시진핑 주석의 대만 발언을 이례적으로 조기 공개하며 메시지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대만이 미중관계에서 타협 불가능한 ‘레드라인(최저선)’임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및 대만 독립 지지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으며, 백악관 공식 성명에서도 대만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제외되었다.

그 외,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중국의 제한적인 개입 기조로 인해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외견상 ‘평화와 안정’을 표방했으나, 본질적으로는 향후 미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협력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조건부 경고로 해석된다. 매파인 루비오 상원의원이 ‘현 상황을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기존 대만 정책의 일관성을 언급했으나, 미국은 조만간 140억 달러의 대만 무기 판매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결정의 향방이 향후 미중 관계의 단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은 3차례 더 예정되어 있다.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11/18~19),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11/20~21)다. 향후 시장은 대만 정세의 변화 추이와 연동하여 미중 양국이 이번 회담에 합의한 경제 협력(구매 및 관세 인하)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 시사점: 기술주 강세장 지속 전망

당분간 중국 증시는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1) 시장이 주목하던 대형 정치적 이벤트가 일단락되었고, 2) 이를 능가할 만한 깜짝 서프라이즈 내용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조짐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잔존, 게다가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 결정까지 더해진다면 대외 변수는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다만 중국 증시는 타 글로벌 증시 대비 상승폭이 미미했던 만큼,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며 조정폭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모멘텀 공백기 속에서 주식시장 시선은 다시 기업 실적과 국내 매크로 펀더멘털로 회귀할 것인데, 현재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지수는 전자부품, 2차전지 비중이 높은 심천시장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중 첨단 기술 공조의 한계가 재확인된 만큼, 중국 정부의 핵심 기술 국산화 및 공급망 내재화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술주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차스닥(Chinext) 및 과창판50(Star50) 지수의 분할 매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표1 2017년과 2026년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주요 성과 비교

	2017년	2026년
회담 일시	11월 9~11일 (3일)	5월 13~15일 (3일)
경제 사절단	29명	16명
계약 규모	2,535억 달러	300억 달러(추정)
미중 관계 규정	새로운 역사 시작점	향후 3년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 관계

<합의 내용>

1. 관세·구매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제조업, 농업,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구매계약 체결 4개의 정기 고위급회담 체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이사회 설립을 통해 300억 달러의 비민감품목의 관세 인하 추진 중국이 미국산 보잉기, 농산물, 에너지 구매 약속
2. 시장개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이사회 설립을 통해 중국시장 추가 개방 논의
3.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은 대만이 미중관계의 중요한 변수라고 말하며, 미국의 간섭을 반대 미국은 모호한 입장 제시. 곧 140억달러의 대만 무기 판매 여부를 결정 예정
4. 중동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모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를 유지, 핵무기 보유 절대 반대 중국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

자료: 중국 외교부, 미국 백악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